

입학생 등록금 면제·장학금 1500만원 지원

2010년 개교 예정, 순천대 광양캠퍼스 청사진 밝혀 노벨상 수준 해외 석학 초빙...2022년 10개학과 확대

오는 2010년 개교 예정인 순천대 광양캠퍼스(가칭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의 밑그림이 나왔다. 순천대 광양캠퍼스는 제 2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대(포스텍)를 지양하며 국내 3대 이공계 특성화대학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모집=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입학생 전원의 등록금을 면제하고 연구 학습비 등 연간 1천50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신입생은 수능성적 전국 상위 2등급 이내(11% 이내)와 학교 내신성적 2등급 이내로 선발하며 일정 수준의 이상의 성적 위

수 지원자가 적어 미달되더라도 추가 모집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모든 신입생은 학과 전공없이 입학한 뒤 2학년부턴 적성에 맞는 전공학과를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수 확보=광양캠퍼스를 세계 수준의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순천대는 우수 교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광양캠퍼스를 운영할 확장급 교수는 노벨상 수준의 해외 석학을 초빙하고 전공별로 1명 이상의 외국인 교수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위해 미국 메사추세츠(MIT) 공대와 UC 버클리, 미시간대, 조지아공대와 포스텍 등 국내외 명문

대학을 방문, 과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교수 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캠퍼스 조성 및 모집 정원=오는 2022년까지 모두 10개 학과가 들어선다. 2010년 기계시스템조성과 제철금속, IT융합소재, 친환경에너지 등 4개 학과 각 30명씩, 120명으로 문을 연 뒤 오는 2022년까지 10개 학과 300명 규모로 확대된다. 또 2012년에 대학원생 60명을 모집하고, 2014년 140명, 2019년 300명 등 대학원생 수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학과생과 대학원생, 교직원 등 1천780명을 수용하게 된다.

광양시 중마동 일대 37만5천720㎡에 조성될 순천대 광양캠퍼스는 올해 말 기숙사와 교양관, 강의실, 교수연구실 등을 착공하고 국제정보교육관은 내년 5월 착공한다.

/동부취재본부=김동호기자 dhkim@kwangju.co.kr /광양=김춘호기자 chkim@kwangju.co.kr



추석을 앞두고 보성군 웅치면 중산리에 있는 보성녹차 개발농장에서 녹차 한과제조가 한창이다. 보성 녹차한과는 친환경 찻잎과 조에 조청을 가미, 맛이 달지 않고 담백해 어린이·노인 간식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다. (보성군 제공)

정남진 장흥 '은퇴자 도시' 들어선다

안양면 비동리 일대...1200억 들여 3만명 수용

정남진 장흥군에 도시지역 은퇴자를 위한 친환경적 주거공간과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춘 '은퇴자 도시'가 들어선다.

장흥군은 은퇴한 기부와 수려한 경관을 가진 안양면 비동리 일대에 사업비 1천200억여원을 들여 인구 3만명을 수용 할 수 있는 200

만㎡ 규모의 은퇴자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장흥군은 지난 4월 사업 예정지 토지 매입비로 군비 30억원을 확보하고 전체 면적의 40%에 이르는 79필지 81만8천㎡에 대해 보상계획을 공고한 데 이어 사전 주민설명회와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또 오는 9월까지 1차 토지보상 협의를 실시하고 사업 확정시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한 패키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퇴자 도시가 조성되면 인근에 추진중인 아토피 복합단지(관백순 20만평), 우드랜드(유원지 및 목재문화체험장) 등과 함께 도시민들에게 휴양과 문화생활 기회를 제공하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화순에 '우수 한약재 저온 저장창고' 건립

내평리 인근 사업비 100억여원 투입 내년 9월 완공

중금속 검사 시설 완비 안전한 국산 한약재 유통 기대

내년 9월 화순읍 내평리 생물산업 연구센터 인근에 '우수 한약재 저온 저장창고'가 건립된다.

화순군은 25일 보건복지가족부 9층 대회의실에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건립을 위해 사업시행자(가칭 참살이(주))와 실시협약을 가졌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화순군은 한약초 메카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 시

설을 완벽하게 갖추게 됐다.

사업비 100억여원이 투입되는 저온 저장창고는 5천733㎡의 규모로 건립된다.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되는 시설투자원리금은 20년간 상환하게 되며, 올 11월 착공해 내년 9월 완공될 예정이다.

저장창고에는 한약재 저장시설과 가공시설, 검사시설 및 홍보시설 등 체계적인 한약재 유통기반 시설을 구

축해 농약, 중금속 잔류 허용기준 검사를 거친 안전한 국산 한약재의 공급이 가능케 됐다.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은 농약 등의 위해물질 오염한약재 유통근절을 통한 한약재의 품질관리를 개선하고 약용작물 관리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이 완공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약재 재배농가의 안정적 생산 및 소득증대, 한약재 가격의 안정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이충무공 유적지 목표 고하도 '해양 관광·호국 교육장' 된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흔이 깃들어 있는 목표 고하도가 '체류형 해양 관광 휴양지 및 호국이념 교육장'으로 본격 개발된다.

목포시는 올해 기반시설인 도로(5.1km) 개설과 주차장(130면) 조성을 시작으로 오는 2010년까지 기념탑 광장, 충무공원, 해양 청소년 야영장, 수군 통제사

기념비, 전망대 등의 공공시설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2011년부터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대중 골프장(9홀), 충무공 연구원, 숙박시설, 캐이불가, 상업시설(체험형 해상카페, 레스토랑), 마리나텔 유치 등 1천 199억 원 규모의 고하도 유원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하도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을 크게 물리친 뒤 함대를 정비하기 위해 108일간 주둔했던 유적지로 역사적 보존 가치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광양시 "유수율 높여 예산 절감"

연말까지 노후계량기·노후관 교체 완료키로

광양시가 물 낭비를 막고 예산 절감을 위해 노후 계량기와 상수관 교체에 나선다.

광양시는 지난해 말 75.3%의 유수율(有收率·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 중 관로에서 손실된 물을 제외하고 수도요금 받는 물의 비율)을 오는 2010년까지 80%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30여 곳의 누수지점을 찾아 복구했고, 연말까지 노후계량기(750개)와 노후관(2.7km) 교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유수율이 1% 향상될 경우 1억원의 예산이 절감돼 유수율이 80%를 넘어선다면 연간 5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장성댐 수물민들의 '고향사랑'

복상면 향우회, 민사무소 마련 명예명장 위촉도

장성호가 조성되면서 사라진 장성군 복상면이 민사무소를 마련하고 명예명장을 위촉하는 등 새로운 구심점을 마련했다.

복상면 향우회는 지난 23일 장성호 복상수물문화관에서 향우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변양면 명예명장'을 위촉했다.

복상면 향우회는 또 장성호 복상수물문화관 2층에 복상면사무소를 개소(사진)하고 향우들의 만남의 장

소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정 장성군수는 명예명장 위촉패를 전달하며 "장성군민들이 여러분의 희생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변양면 명예명장님을 구심점으로 화합하고 나아가 장성군의 발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복상면은 1975년 수몰되면서 대다수 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졌으며 '복상면'이라는 행정구역 명칭도 사라졌다. /장성=정필수기자 bungy@

국비 들여 개인 땅에 타운 조성...밭을 대지로 형질 변경

구례 '야생화타운' 특혜 의혹

구례군이 추진 중인 야생화타운 조성사업이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례군은 마산면 화엄사 주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내 사유지 1만7천㎡에 야생화타운을 건립하기 위해 국비 5억원을 들여 내년 초 완공 목표로 지난 2006년부터 공사를 하고 있다.

야생화타운 땅 소유자는 모 중견건설업체 대표 A씨로, 국비를 들여 개인 땅에 야생화타운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지적과 함께 구례군이 1만7천㎡ 중 6천㎡에 달하는 밭을 대지로 형질변경해 줬 논란이 일고 있다.

야생화타운이 조성될 부지는 지난 1988년 A씨가 운영하는 법인이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군으로부터 사들인 뒤 1996년 A씨 명의로 등기가 변경됐는데, 20년 동안 숙박시설이 들어서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숙박시설을

토지에 야생화타운이 들어서려면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군이 이같은 절차를 생략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구례군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적당한 야생화타운 부지가 없어 A씨에게 부탁해 부지를 조성하게 됐다"며 "당시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국비를 반환해야 했으며, 야생화타운 부지 내에 관리동을 짓고 연못을 파기 위해서는 형질변경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야생화타운 부지의 용도가 숙박시설로 돼 있던 하지만,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야생화타운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용도변경 절차를 밟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군의회도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김동호기자 dhkim@

전남도 '상식으로 만나는 의전' 책자 발간

전남도가 어려운 업무로 인식돼 기피대상으로 꼽혀 온 '의전 업무'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 책자인 '상식으로 만나는 의전'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의전실무 책자는 ▲의전예우기준 ▲좌석배치기준 ▲의

전행사 기획 및 진행절차 ▲각종 식사의 작성과 실용 ▲행사유형별 사례 등 5편으로 구성됐으며,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형별 행사사례를 수록했다.

전남도는 이 책자를 전남도내 시·군 및 일선 읍·면·동까지 모두 배부

해 일선 자치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데 좋은 안내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윤식 전남도 행정과장은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전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공무원들은 물론 일반 행사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여수시 "친환경 녹색체전 기대하세요"

오는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여수시에서 개최되는 '제 89회 전국체전'이 친환경 녹색체전으로 치러진다.

여수시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번 체전을 친환경 녹색체전으로 선언하고 세부실천 방안을 수립했다.

녹색체전에 걸맞게 경기장 주차장을 그린잔디 블록으로 시공하고, 경기장에 피톤치드방(공동차실)을 설치·운영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기로 했다.

경기장 응원도구도 천연염색 스카프, 부채, 대나무 박자 등 친환경 도구를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남체육공원 내에 아치형 박터널과 꽃터널 단지를 조성하고 체전이 열리는 경기장과 시내 곳곳을 특색 있는 자연친화적 꽃으로 장식해 녹색체전의 이미지를 한껏 드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회의 각종 정보를 제공할 종합안내소 역시 벗짚과 싸리문, 호박 등 친환경 자재로 꾸미는 한편 시·도선수단에 제공해오던 꽃다



오는 10월 제 89회 전국체전 개·폐회식이 열리는 여수시 진남경기장내에는 요즘 각종 시설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경기장에 피톤치드방·1회용품 사용 자제 등

10월 체전 개막 앞두고 세부 실천 방안 수립

발 대신 여수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선출할 계획이다.

특히 체전기간에 돌산갯김치, 새고막, 홍합 등 대표 특산물 무료 시식코너를 운영해 여수의 넉넉한

인심과 먹거리를 자랑하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 도시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방침이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전남 슬로시티 관광상품 개발"

4개 여행사 남도답사 나서

일본 현지 여행사들이 2008년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전남지역 슬로시티 인증지역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남도답사에 나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일본 히로시마지역의 유력 여행사인 한큐통사 등 4개 여행사가 26일부터 29일까지 담양 창평, 완도 청산도, 신안 증도를 답사하며 슬로시

티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전남 방문의 해의 타깃이 국내 관광객들에 집중된 편이 있었는데 이번 일본 여행사 관계자들의 방문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